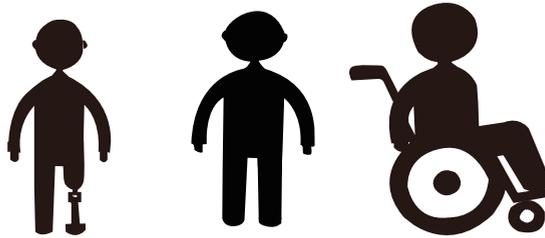


글 박선영,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그림 참빛문화예술학교 학생

너, 나, 우리



내가될 수 있고, 너가 될수있고 우리 중 누구나 될 수 있는 일

너, 나, 우리.

목차

여는 글 4p

나의 글

과연 그럴까? 13p

편견의 무서움 14p

그들이 원하는 것 15p

생각의 변화 16p

우리의 글

어느 활동 보조의 일과 23p

발달 장애와 함께한 20년 돌아보기 24p

목차

너의 글

그냥 좀 돌아다니자. 31p

장애인은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있다. 32p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 36p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 38p

언젠가 장애인이 될 수 있다. 43p

못 다한 이야기

답는 글

여는 글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며 이야기도 나누고 혼자 짜증 내며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앞으로 살면서 소중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혼자 여러명을 만나며 소통하는 것은 참 힘들었습니다. 거기다 장애인이라는 주제로 실례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해서 긴장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긴장했던 것과 달리 다들 반갑게 맞이해 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이 에세이집에 들어가는 글들은 인터뷰도 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며 나온 글들입니다. 글을 쓰기 어려운 분들은 얘기 해주시면 제가 받아 적는 방법으로, 그림은 이야기 나누며 학생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동안 저의 변화와 느꼈던 생각을 담았습니다.

이 에세이집에는

장애인들의 이야기, 장애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그림을 통해 제가 생각나는 키워드와 그와 관련된 좋은 글귀들을 담았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많아도 한 분 한 분 특성이 담겨 있는 글이니 그 뜻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들을 수 없었던 차별에 관한 것, 그리고 장애인들의 생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여 비장애인과의 벽을 조금이나마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9년 논문 쓰는 날

박선영드림

나의 글

비장애인이란 불리는 나의 이야기

우리는 과연 비장애인이 맞을까?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는 무엇일까?

장애인의 사전적 정의는 '신체일부가 장애가 있거나 정신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장애인이 아니라도 신체적 능력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우리집만 해도 엄마는 무릎이 좋지 않아 걷는데 어려움을 겪고 아빠도 손 쓰는게 자유롭지 않다. 따지고 보면 정신적 어려움은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장애 요소다. 정신적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타인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자존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성격이 원만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이렇듯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누구나 한두가지 장애를 안고 사는것 같다.

이런 시선으로 보면 누군들 장애인이 아닐 수 있을까.

장애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 또한 아니다. 일상생활에 근접해 있고 어찌 보면 나 혹은 우리가 모두 장애인일 수도 있다.

편견의 무서움

인천시 장수동에 위치한 발달 장애 학교인 참빛문화예술학교에 수업 참관을 갔다. 마침 풍물 수업을 하고 있었다. 풍물은 나도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배우는것이라 더 관심있게 참관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하기 싫다고 짱짱대는 모습을 하다가도 막상 하면 재미있게 빵긋 빵긋 웃으면서 하는 모습을 보니 재밌기도 하고 나랑 비슷해 웃음도 나왔다.

악기를 다루는 몸짓은 서툴러도 소리는 '동 동 동' 예쁘게 나왔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참빛 학생들과 공동수업과 기타 교류 활동을 많이 했었다. 그러나 내 기억 속에는 무대 위에서 뛰어다니는 모습, 침 흘리거나 하기 싫다는 듯 소리를 크게 지르는 모습들 뿐이었다. 왜 그런 모습들만 기억으로 남아있는 지... 그시절 나는 발달 장애인들의 돌발 행동들을 보고 놀라고 무섭기만 했었다. 다른 존재, 나와 관련 없는, 나와는 전혀 다른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어떤 고정관념, '편견'은 같은 모습을 보아도 대상에 따라 전혀 다른 인식으로 남는 다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 내 머리속에 기억된 참빛학교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편견'으로 가득차 있었는지 새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

한 지체 장애인을 인터뷰 하게 되었다.

‘티브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선전중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장애인도 장애인 개개인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언제까지 온실 속 화초처럼 누구의 도움에 의존하며 살 수는 없다’라고 하셨다.

장애인이어서 무조건적인 도움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적인 삶을 사는것, 누구에게 의존하고 의지한 삶이 아니라 독립적이며 주체적인 삶을 사는것을 원한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장애인을 넘어서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바람일것이다.

답을 듣고 계속 생각을 했다. 이건 바람 이전에 권리여야 하지 않을까?

도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수 있는 권리를 챙기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임을 알았다.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들이 우리사회는 왜 이리 어려운 것일까? 아직도 우리사회는 중증장애인들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물론 자기 의사로 들어간 장애인들도 있을 것이다.) 장애인 보호 시설이라는 곳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 주거의 자유는 봉쇄되고 이동의 자유는 더더욱 장애물 투성이다. 주거권, 이동권 같은 권리는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권리를 못 누리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장애인들도 당연하게 누려야한다. 각자 맞게.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사회를 바라며.

생각의 변화

논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인터뷰를 했다.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이해가 넓어지고 변화해가는 나를 느낄 수 있었다. 내 생각과 나의 시선, 익숙함까지 많은 것들이 장애인들을 알아가면서 변화했다.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의 나를 생각해보면 인터뷰를 진행할 때도, 그냥 생각할 때도 '나는 장애인 관련 논문을 쓰니까 더 친근하게 대해야 하고 어색한 티 내면 안 돼'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었다. 장애인들을 만날 때도 한 사람으로 이해해 나가기보다는 그사람이 장애인이라는 것에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어쩌면 동정의 시선을 주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로 더 과하게 반응하거나 계속 웃고 있었던 것 같다. 어색함을 보여서는 안됐고,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는 압박이 스스로 있었다. 그래서 초반에는 편하게 인터뷰를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 못해서 당연히 인터뷰도 좋지않게 나왔다.

지금 나는 변했다는 것을 느낀다. 장애인을 그냥 보편적인 한 사람으로 이해해 나가기 시작했고 시선 또한 한 장애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여느 사람처럼 별 다른것 없이 함께 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 한 자리를 차지했다. 정확한 계기는 없고 어느 순간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대하고 있었다. 나와 안 맞는 사람을 만나면 ‘장애인이라 불편한가?’ 보다는 ‘이 분이 나와 성향이 안 맞는구나, 이 사람의 이런 부분이 나와 반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인과 만남에서 특별한 것은 없었다.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니 누구나와 나누던 자연스런 대화였다. 어떤 차이도 없었다. 평범하고 자연스러웠다.

만나면 만날수록 한 장애인을 이해해 나가는 게 아닌 한 사람을 이해해 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 할 수 있을까?'
나는 혹은 우리는 그를 이해할 수 있을까?

'사회는 왜, 어찌다가 사회적 소수자를 만들어 냈을까.'

Q. 장애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누구나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처럼 안경을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애라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라 봐주지 않고 나하고 조금 생김새, 외모 이런 게 다를 뿐이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으면 좋겠고 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많은 세상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활동보조인 인터뷰 中

우리의 글

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된 이야기

발달장애인과 함께 한 20년을 돌아보며

최진미 (참빛문화예술학교 교장 선생님)

2008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를 세울 때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나 2015년 발달장애인법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장애인에 비해 부모님들이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더 크기에 장애인복지법이 있으면서도 발달장애인법이 생겨났습니다. 발달장애 부모상담, 가족 휴식지원 사업,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 활동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그에 따른 제공기관들이 생겨나고 관련된 인력들이 생겨나면서 사회 전반적인 인식들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일반인과의 소통의 통로이며, 인식 개선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타고난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 장애인이 더 많다고 합니다. 모두가 잠재적인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며 모두 관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후천적 장애가 많은 신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소통의 어려움에 의해 사회와의 편견들이 더 쌓여갈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발달장애인과 접하는 기회가 많을수록 편견의 벽이 낮아지리라고 보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편견의 벽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성인기까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적어질 것입니다.

지난 20여년간 발달장애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단지 늦을 뿐이지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작은 변화일 수도 있으나 그 작은 변화들이 수십년 후에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식적인 채움보다는 기본 자립 생활의 중요성이 크기에 한걸음씩 내딛는 걸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큰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시거나 무시를 받는 다는 것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 식당들은 턱이 있어요. 그럼 못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도 의자끼리 등을 맞대고 있는 사이가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장애인은 좁아도 갈 수 있는데 우리는 휠체어가 있으니까 들여보내질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받아요.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먹으러 가요.’

장애인 인터뷰 ‘中’

어느 활동보조의 일과

이경숙(장애인 활동 지원사)

내 나이 69세 활동보조를 한지는 벌써 8년이 되었네요.

김남옥씨만 했지요. 중간에 다른 사람도 한두 번 했고요.

친구의 소개로 활보(활동 보조)를 시작했어요.

장애인도 사람인지라 비장애인이나 똑같아요. 난 장애인은 서로 위해주며 도와가며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장애인은 그 기본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69년을 살면서 더욱더 느껴요. 감사하다는 것을. 저의 집은 장애인이 없어요. 그래서 무례했죠. 옛날에 운동을 다니면서 힘쓸 때 어디다 쓰나 했더니 지금 장애인 돌보면서 사네요.

감사하면서 살죠. 건강해서. 그리고 또 빌죠. 건강해서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너의 글

다르면서도 같은 너의 이야기

그냥 좀 돌아다니자

장애경(노들장애인야학 학생)

나나 비장애인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장애인이라고) 길가다가도 말 걸지 말고 바쁘니까 말도 안 걸었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피하지 말고 그냥 돌아다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어디든지 어떤 장애인이 가든 피하지 않고 식당에서도 내가 돈 내고 먹는 거니까 좀 받아 줬으면 좋겠다.

장애인은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있다.

문명동(노들장애인이야학 학생)

시대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장애인들이 집에만 있고 시설에만 갇혀 살다가 사회에 나오면서 부터 비장애인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고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마치 외계인처럼 아예 존재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난 존재로 생각 했을 것이다. 내가 느꼈다. 그러다가 시대가 변해서 욕하고 놀리는 것은 안 하는 대신 아예 장애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다는 것에 분노를 느꼈다. 같은 사람인데... 정부에 바라는 것은 어린이집에서부터 장애 아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비장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선입견을 버렸으면 좋겠다. 장애인은 무조건 안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회사 채용에 있어서 무조건 생산성을 강조하는데, 물건을 만들지 않아도 생산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의 머리 속에서 나오는 것도 생산성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것을 거부한다는게 참 슬프다. 장애의 생산성을 상품 생산에 맞추지 말고 아이디어도 상품 생산이라 생각해주는 회사도 생겼으면 좋겠다.

서로가 어울릴수 있는 문화도 생겨야한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

김명학님(노들장애인야학 상근자 겸 학생)

이 한국에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게 참 힘들다.

장애인이라 하면 동정과 시혜¹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이 제일 힘들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상처도 많이 받는다.

앞으로 당당한 인간으로 또는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봐 주었으면 좋겠다.

1 시혜 (施惠), 은혜를 베푸는 것. 또는 그 은혜

장애인은 요구하는 사람들, 요구를 안 들어주면 싸우는 사람들, 떼쓰는 사람들이 아니다. 장애인도 하나의 자기 삶을 누구 못지 않게 사랑하고 열심히 노동 하고 있고 놀고 싶고 배우고 싶고 똑같다. 비장애인과 생각도 똑같다. 다르지 않다.

장애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동네나 옆집 또는 우리 친구일 수도 있다. 그만큼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똑같은 사람이다. 장애인이 편하면 다 편하다.

장애는 변할 수 없지만, 사회는 변할 수 있다.

'당신이 어떤사람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미래,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어떤 시선이 있었을까?'

장애인으로 사는 것

박정숙(노들장애인야학 학생)

60세 장애 2급 여성으로

편견과 혐오로 가득한 여기서 산다는 것은 투쟁의 연속일 수 밖에 없다.

대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턱과 계단과 수많은 장애물과 만나게 된다, 사실 장애가 문제이기 보다는 경사도가 없고 울퉁불퉁한 보도 블록들, 수많은 계단들과 소소한 턱들. 이렇게 비장애 인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는 주변 환경들이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회인식을 만들어 놓았다.

60가까이 까지 살면서 나는 충분히 배제당하고 학대와 방임 되어온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 로 살고 있다 꼭 때리거나 굶겨야 학대는 아니다. 그저 밥이나 잘 먹이고 씻기고 입혔다고 할 일 다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 ,

다 그렇진 않지만 또 대부분 재가 장애인¹들은 부모님의 지대한 관심 또는 무관심으로 보호된 배제와 학대 방임이 일어난다. 나 또한 유년을 그렇게 보냈다.

1. 재가 장애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집에 머물며 살아가는 장애인.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집안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나의 중학교 입학에 놓고 의견이 분분해 지고 한번도 안하던 집안 회의에서 "저 몸으로 학교는 다녀서 뭐 하겠나 기술이나 배워서 밥이나 먹고 살게 하면 되지" 이렇게 결론이 나고 가난했던 내 아버지는 집안 형님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당사자인 나에게는 아무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렇게 꿈많은 10대, 나는 또 집에 갇히게 되었고 17세 되던 해 죽을 각오로 가출을 해 그때는 미처 몰랐던 무정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 우여곡절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했고 장애 때문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막다른 길에서 새 길을 열어준 것은 공부였다.

20대 초반 청년시절 낮에는 공장에, 밤에는 야학을 다니며 새로운 눈과 귀를 갖게 되면서 강한 마음도 키우기 시작했다. 투쟁의 의지는 그때 부터였던 것 같다. 배움에 목말랐던 내게 생명수와 같은 기회였던 것이다. 틈틈이 야학선생님이 권해주는 책을 많이 읽는 걸로 위로를 삼으며 여러 가지 단순 작업을 하는 공장을 전전하며 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20여년을 일하며 한 두 명의 사업자들은 장애보다는 일하는 능력을 보고 임금을 비장애인 사원과 다르지 않게 주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장애를 들먹이며 채용 해준 것 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라고 동정과 시혜를 자랑하며 자기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떠벌이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억울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쫓겨나기도 여러 번 했다 장애와 가난 그리고 못 배운 것이 편견과 차별이 만연한 이 사회에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통증을 수반하는 아프고 외로운 삶, 늘 죽음을 생각 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걸 매일 통감하며 지나온 시간이다. 장애인으로 살아온 시간을 묻는다면 나는 저항해야 하는 통증이라고 말하고 싶다.

세월이 지나 나이 먹고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었고 이제 할머니라 부를 나이가 되었다.
긴 세월을 견딘 지금도 싸워야만 하는 고통과 통증의 사회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다.

물론 조금은 약 처방이 되어 편의시설들이 생기고 있고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 개선도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싸운다. 흑자는 다 늙어서 뭐하는 짓이냐고, 많이 좋아졌으니 이제 그만 하라고 한다. 할 말은 너무 많지만 그런 말로 마치 자기가 해준 것인양 큰소리치는 이들에겐 굳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싶지 않다.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살면서 뼈아프게 체득했기 때문이다. 7년전 노들을 찾고 노들야학에서 공부 하고 일하며 나는 매일 승리의 환호를 한다. 검정고시로 중학과정까지 마치고 이제 고졸 과정을 준비 중 이다. 낮에는 법인에서 일을 한다. 내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비장애인 동지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누구도 장애를 문제 삼지 않는다.

유리빌딩 노들 공간 모든 환경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무장애 사무실¹로 되어있다

1. 턱이 없고 엘리베이터가 있어 비장애인 장애인 할것없이 누구나 들어 갈 수 있는 사무실

지금도 변함없이 투쟁하고 배우는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이고 살아가야하기 때문이다 또 후배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혐오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굳건히 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함이다

나 혼자선 미미 하지만 동지들과 함께라면 차별에 저항하는 힘도 백배 천배 증가됨을 보며 내 일에 대한 희망을 가슴 가득 담아 씩씩하게 오늘도 나아간다.

비장애인 사람들은 장애인을 바라보며 장애를 극복했다 초월했다 말하며 박수를 쳐 준다. 이것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 된다. 왜냐면 틀린 말이니까 장애인은 매일 눈을 뜨면 마치 전장에 나가는 병사처럼 비장한 각오로 오늘도 살아남기를 기도해야 하는 의식과도 같은 것이다.

그만큼 나에게 세상은 거대한 혐오의 눈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나는 60세 여성 장애인이다

언젠가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김만옥(노들 장애인 야학 학생)

시설에서 나온 뒤 좀 오래되면 차별에 관한 것에 덤덤해진다.

그냥 피하는 부분이 많고 활동지원사랑 같이 있기 때문에 지원사가 대신 말하거나 대변한다. 비장애인도 언젠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언젠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데 계속 장애인들을 무시한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못 다한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못다한 이야기는 발달장애학생들의 그림과 여러 좋은 글이 담겨 있고, 그림 옆에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들을 글 키워드와 매치했습니다.

책 혹은 기사 속에서 얼핏 보고 지나칠 수 있는 문구들은 저의 생각을 바꾸어 냈습니다. 또 이 그림을 그린 학생이 무슨생각으로 그렸을 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빛문화예술학교 학생 그림

혜정과 같이 지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에만 찾아오는 신선한 공기가 있다. 나는 그것을 나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새로운 세상의 공기라고 생각한다. 연약한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언젠가 내가 연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다.

장혜영, 『어른이 되면』 中

여러 재료가 섞여 하나의 요리 되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의 요리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며 사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참빛문화예술학교 학생 그림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개인이 맞닥뜨린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공동체, 타인의 슬픔에 깊게 공감하고 행동하는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거대하고 또 중요한지에 대해서요, 당신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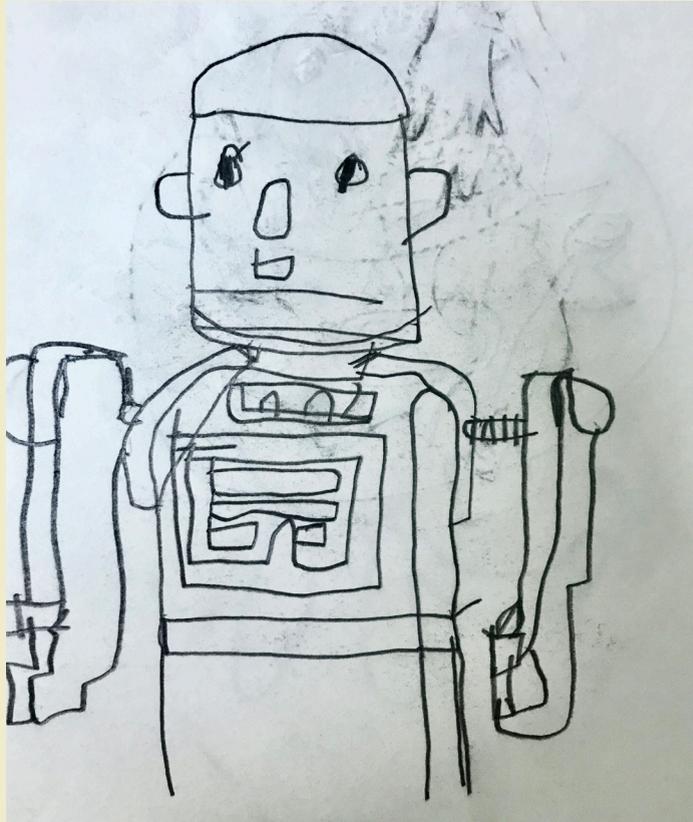
당신과 나, 우리의 공동체는 안녕하신지요?

김승섭, 『아픔이 길이 되려면』 中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나와는 다른.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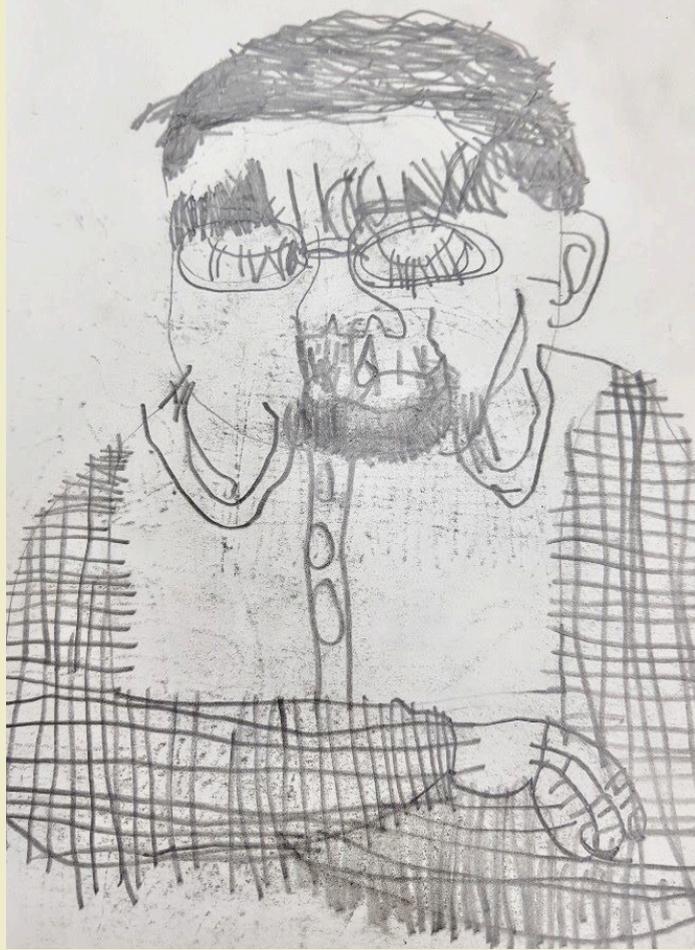
공동체는 모두가 같아야 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함께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참빛문화예술학교 학생 그림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집안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나의 중학교 입학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지고 한 번도 안 하던 집안 회의에서 저 몸으로 학교는 다녀서 뭐하겠나,
기술이나 배워서 밥이나 먹고 살게 하면 되지 이렇게 결론이 나고 가난했던 내 아버지는
집안 형님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당사자인 나에게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박정숙, 「장애인으로 사는 것」 中

자기의 몸을 맘대로 할 수 없는 것. 로봇은 누가 움직여 줘야지 움직일 수있다.
이 로봇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참빛문화예술학교 학생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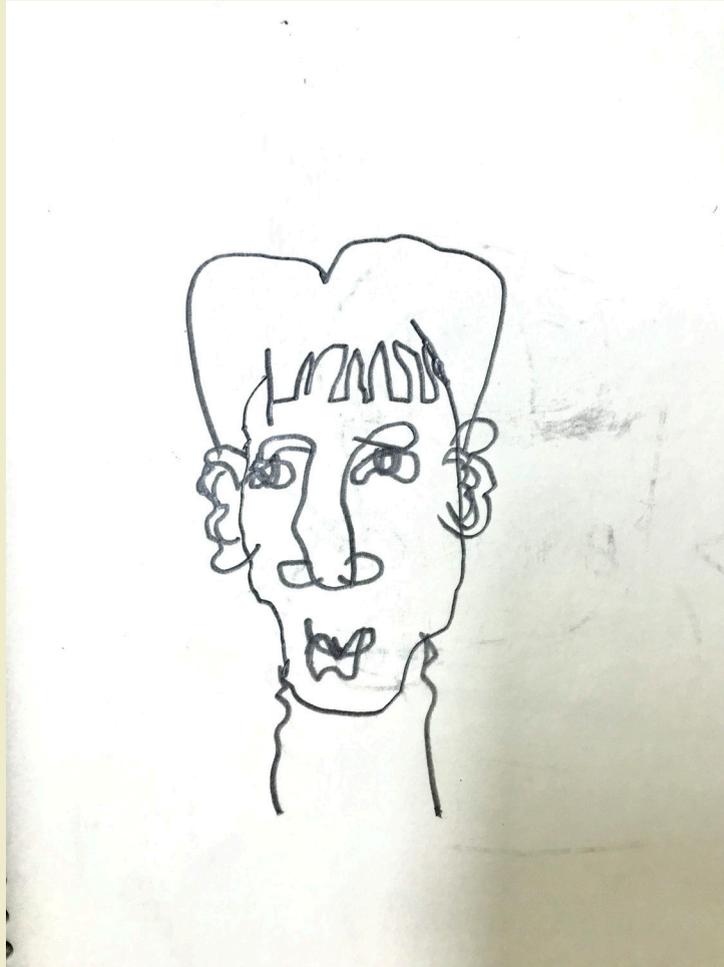
비장애인 사람들은 장애인을 바라보며 장애를 극복했다 초월했다 말하며 박수를 쳐 준다. 이것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 된다. 왜냐면 틀린 말 이니까 장애인은 매일 눈을 뜨면 마치 전장에 나가는 병사처럼 비장한 각오로 오늘도 살아남기를 기도해야 하는 의식과도 같은 것이다.

그만큼 나에게 세상은 거대한 혐오의 눈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박정숙, 「장애인으로 사는 것」 中

비장함이 잔뜩 담겨있는 모습, 마치 장애인이 밖을 나설 때 보이는 모습 같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걷는 길이 누군가에겐 두려움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참빛문화예술학교 학생 그림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본질적으로 같은 인간이다. 비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만날 때 따로 주의 사항이 없듯이 장애인을 대하는 데에도 특별한 주의사항은 필요하지 않다. 혹여 실수를 하게 된다면 사과를 하면 된다. 물론 사과를 받아주는 것은 상대의 몫이다. 인간대 인간으로서 커뮤니케이션에 장애와 비장애는 중요한 차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소통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다.

장혜영, 『어른이 되면』 中

" 인간에 대한 예의는 장애와 비장애가 따로 없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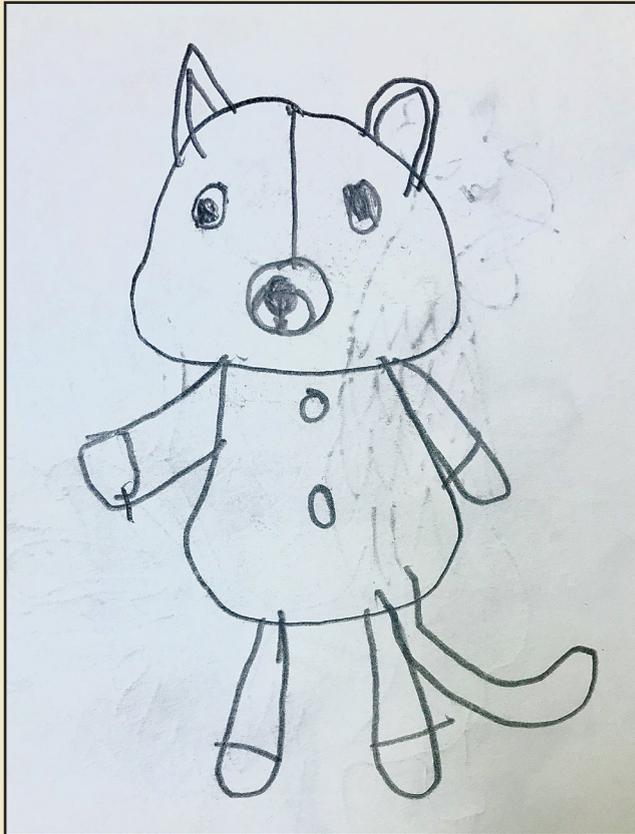


참빛문화예술학교 학생 그림

그렇게 꿈많은 10대, 나는 또 집에 갇히게 되었고 17세 되던 해 죽을 각오로 가출을 해 그때는 미처 몰랐던 무정한 사회에 첫발을 디었다. 우여곡절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했고 장애 때문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막다른 길에서 새 길을 열어준 것은 공부였다.

박정숙, 「장애인으로 사는 것」 中

꽃이 피었다. 긴 세월 모진 시간을 이겨내고 아름답게 피었다. 누군가의 발길에 짓밟혀도 거센 비바람에 꺾이지 않는 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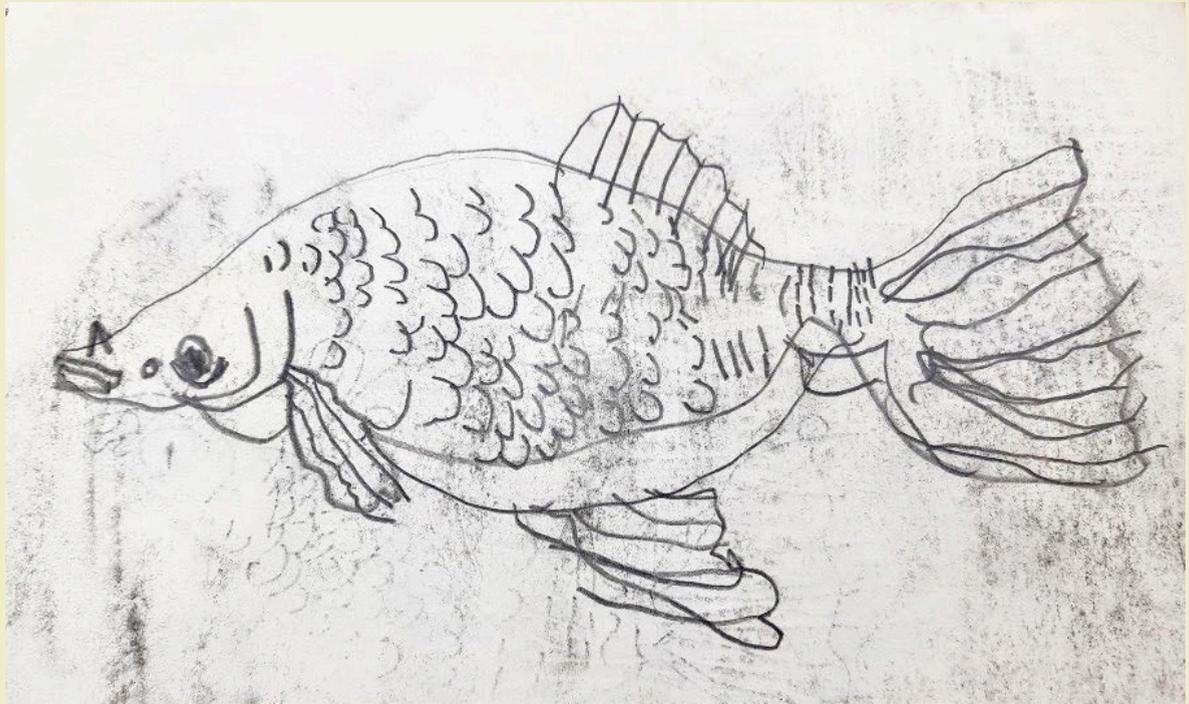


참빛문화예술학교 학생 그림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추정 장애인구는 267만명으로 전 인구 대비 장애 출현율은 5.4%이다. 누군들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있겠는가? 10명중 9명은 후천적 장애인이다. 현재는 비장애인이지만, 누구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환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일상생활 속에 있기에 차별해소를 위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충분한 이유이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될지 모른다.

출처: 대구뉴스 「일상 속 장애인들의 편견과 차별」



참빛문화예술학교 학생 그림

혜정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었다. 혜정리는 욕망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몸’으로 취급받는 삶을 너무 오래 살았다. 그런 혜정리에 게 필요한 것은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이었다.

장혜영, 『어른이 되면』 中

물고기는 자유롭게 바다를 누비며 살아간다. 물고기가 사는 법이다.
어쩌면 당연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것으로 느끼게 된다.



참빛문화예술학교 학생 그림

지금도 변함없이 투쟁하고 배우는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이고 살아가야하기 때문이다 또 후배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혐오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굳건히 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함이다
나 혼자선 미미 하지만 동지들과 함께라면 차별에 저항하는 힘도 백배 천배 증가됨을 보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슴가득 담아 씩씩하게 오늘도 나아간다.
박정숙, 「장애인으로 사는 것」 中

아기가 우리에게 마법을 부리고 있다. 마법은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준다.
동지들과 함께 갖는 희망은 마법이다.



참빛문화예술학교 학생 그림

지난 20여년간 발달장애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단지 늦을 뿐이지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작은 변화일 수도 있으나 그 작은 변화들이 수십년 후에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진미, 「발달장애인과 함께한 20년을」 中

해바리기의 꽃말은 기다림이라 한다. 믿고 기다리면 큰 변화가 올 수 있다고 한다. 작은 변화가 모아지면 우리에게도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닫는 글

어떠셨나요? 글을 받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보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 오히려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시혜적 존재로만 여겨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부터 논문 준비과정에서 장애인 분들과 관계자 분들을 만나며 도움을 드리기로 보다는 오히려 제 자신이 가져왔던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인식을 깨는 데 너무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든면에서 비장애인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 입니다.

비장애인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세상을 장애인들도 편안히 활보하는 '무장애 세상'과 장애, 비장애를 나누는 교육의 담벼락을 없애고 한 공간에서 교육 받고 생활하는 장애 통합교육, 불편함과 어려움을 존중 받는 가운데 정당하게 취업 할 수 있는 일자리 보장과 고용안정 등 어찌보면 '함께' 공존하기 위해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 분들도 고민 해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성'이라는 범주를 떠올리게 됩니다

'정상성' 범주 안에서 장애와 비장애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단정 짓고 판단해 오진 않았는지...

다름과 차이를 차별과 편견으로 왜곡 시키진 않았는지...

부족한 제 글을 읽으면서 조금이나마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기존 인식의 폭이 좁아졌으면 합니다.

" 나, 너, 우리는 차이는 있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

2019년 10월 17일

빅선영 올림

thanks to

글씨주신 노들야학
박정숙님, 김명학님, 김만옥님,
장애경님, 문명동님, 최진미님, 이경숙님,

그림 그려준 참빛문화예술학교 학생들

옆에서 지원군사로 항상 감사한 재형T, 지선T, 엄마,
아빠, 오빠, 17학번 양반친구들

그 외 인터뷰 해주신 분들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THANK YOU"

